

Robotics (Overweight)

대전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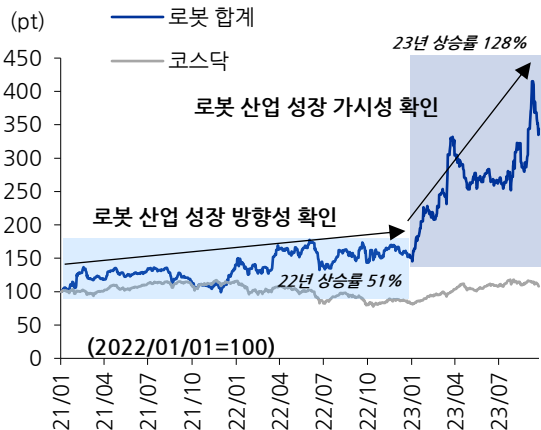
로봇 산업 포인트

22년부터 로봇 관련 종목 주가 강세 지속. 24년에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 예상하며, 중장기적 우상향 흐름 기대. 협동 로봇 및 물류 로봇 분야 선호.

로봇틱스/기계/운송 양승윤_02)368-6139 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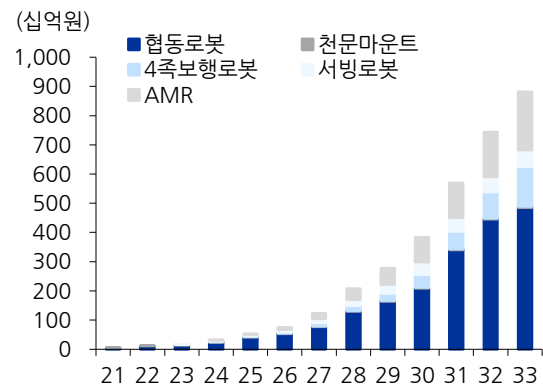
- 국내 로봇 종목 주가 강세 지속. 연초 대비 로봇 종목 시총 상승률은 +128%(KOSDAQ +32%)
- 로봇 산업의 명확한 성장 방향성 확인, 성장에 대한 가시성 높아지며 빠르게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
-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따른 로봇 도입 부담 지속 낮아지고 있어, 구조적인 수요 증가 흐름 기대
- 국내 대기업 로봇 사업 확대, 정부 정책 지원 등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중
- 24년에는 로봇 수요 반등과 함께 로봇 기업의 투자 및 사업 확대, 대기업 로봇 사업 본격화로 성장 국면 진입 예상
-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분야 지속 선호하며, 사업 확대 및 수요 개척 역량, 다양한 로봇 플랫폼 보유 기업에 관심
- 로봇 산업 Top Pick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지. 투자의견 BUY와 목표가 200,000원(상향) 제시.

로봇 관련 종목 및 코스닥 시총 추이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유형별 매출액 실적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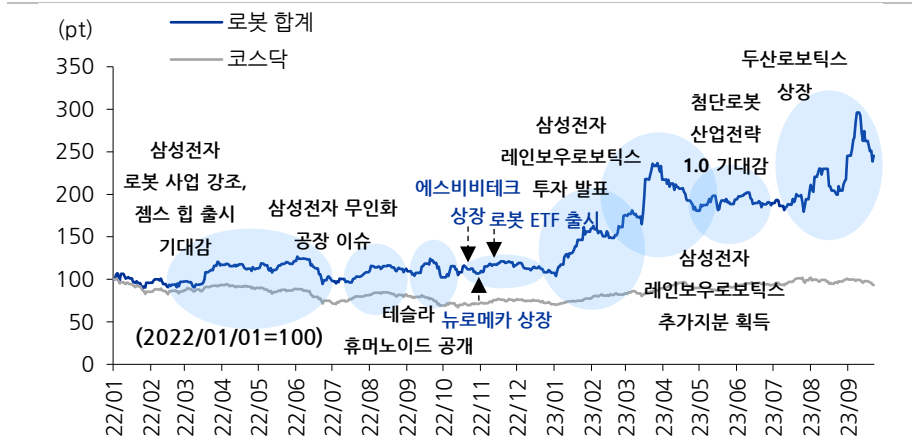
대전환의 시대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 결과를 보여줘야할 때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로봇 관련 종목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 로봇 산업의 명확한 성장 방향성이 확인되고,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빠르게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 높아지는 기대감만큼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나, 향후 로봇 사업의 성과와 실적 성장이 동반되며 중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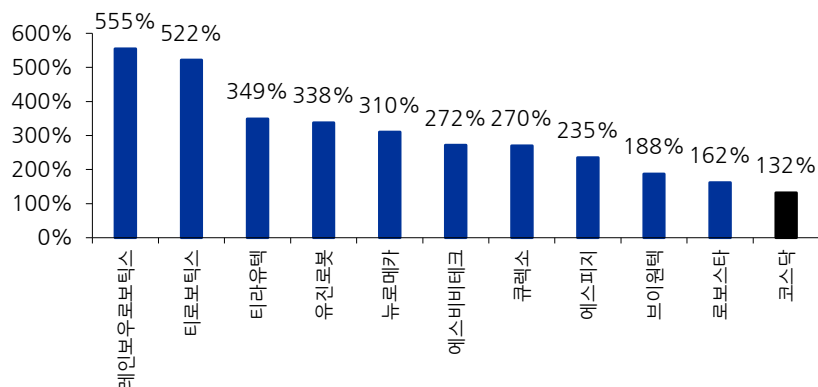
2024년은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춤했던 로봇 수요가 다시 한 번 반등함에 따라 실적 성장의 시기로 진입하고, 로봇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 집행과 제품 라인업 확대, 해외 진출 가속화가 이루어지기 때문. 올해 10월에 상장하는 두산로보틱스는 2024년에 공장 증설과 함께 AMR 기업에 대한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내년 이후 서빙로봇과 AMR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협동 로봇 라인업 확대 또한 추진 중. 이 외에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도표 1.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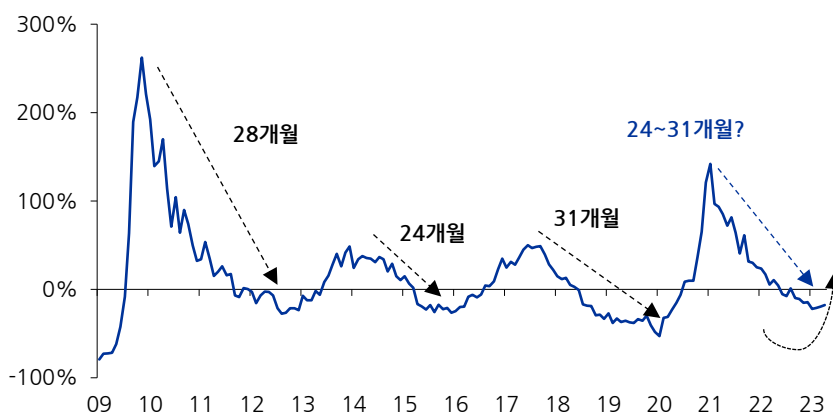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주요 로봇 기업 주가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YT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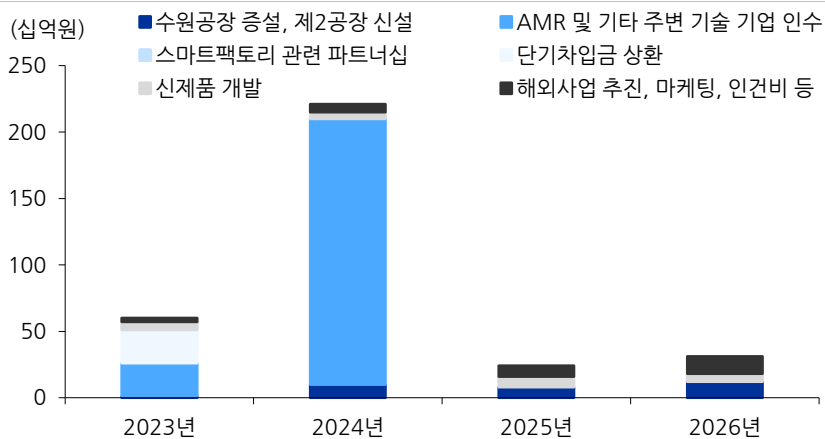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도표 3. 반등을 노리는 공작기계주 yoy 증감율(일본)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두산로보틱스 공모 자금 투자집행 계획



자료: 두산로보틱스, 유진투자증권

로봇의 필요성,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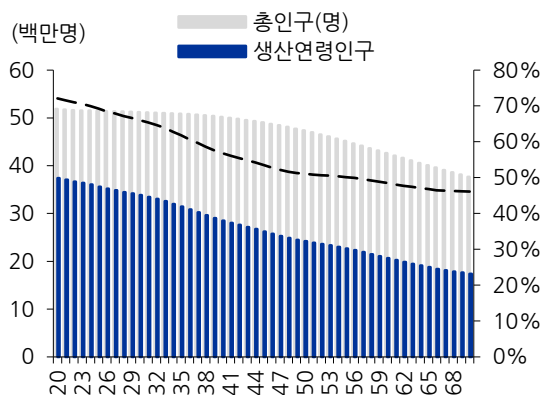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로봇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로봇과 같은 자동화 수단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3 년 5,156 만명에서 2030 년 5,120 만명, 2050 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 문제는 단순히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 가속화로 생산가능인구(15~64 세)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있음.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3 년 대비 2030 년 7%, 2050 년 33%, 2070 년 52%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빠른 속도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와 같은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인당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함.

인건비 상승도 로봇 도입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월 최저 임금 수준은 5 년전과 비교하여 약 10% 증가했고, 인건비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로봇 도입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음. 전통 산업용 로봇의 투자회수기간(Payback Period)이 과거 2000 년대 초반의 6~8 년 수준에서 현재는 3 년 내외 수준까지 단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자회수기간이 짧아질수록, 로봇 도입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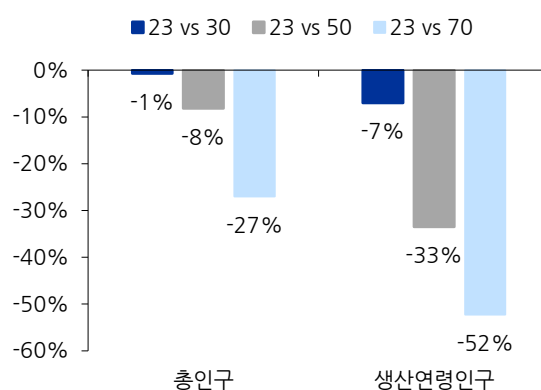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 미국이 Reshoring Initiative, IRA, CHIPS 등 적극적인 공급망 재편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다수의 신규 공장이 건설될 예정이거나 건설 중. 새로이 지어지는 공장에는 심화되는 인력난 속에서 로봇 등 자동화 수단을 대거 적용한 스마트팩토리의 형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도표 5. 한국 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6. 한국 인구 2023년 대비 감소 추이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7. 로봇 투자회수기간과 수요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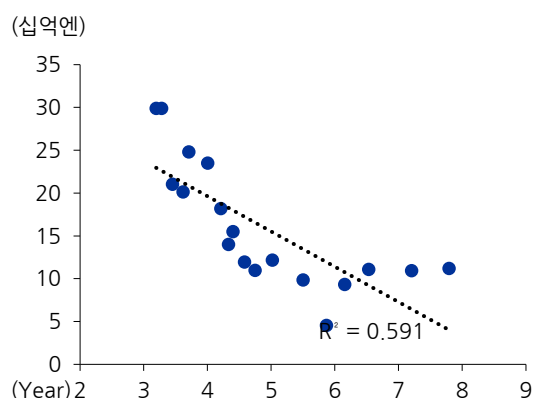
자료: JARA, 유진투자증권
주) 전통 산업용 로봇(일본) 수주 기준

도표 8. 산업용 로봇 투자회수기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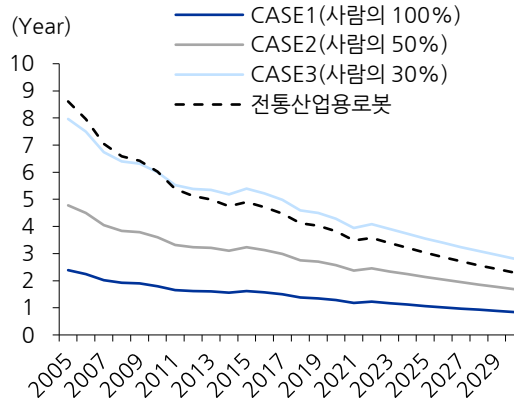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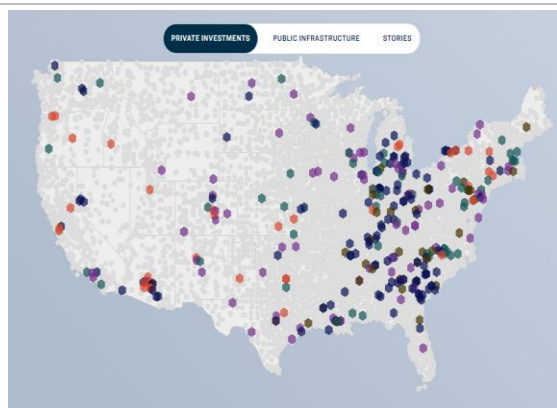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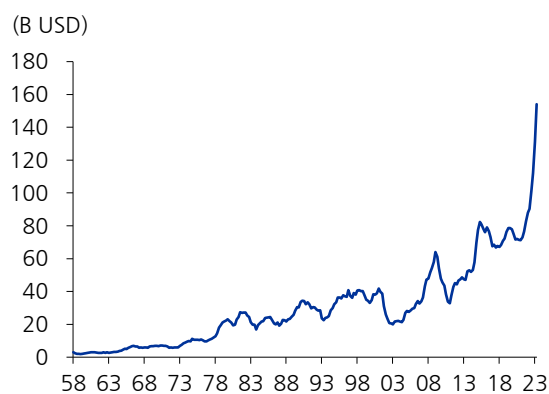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CASE 1~3은 협동 로봇 기준

도표 9. 미국 내 신규 공장 설립 현황



자료: 백악관,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미국 민간 고정자산 투자 추이(제조 공장)



자료: FRED, 유진투자증권

터져 나오는 로봇 이슈, 성장의 가시성을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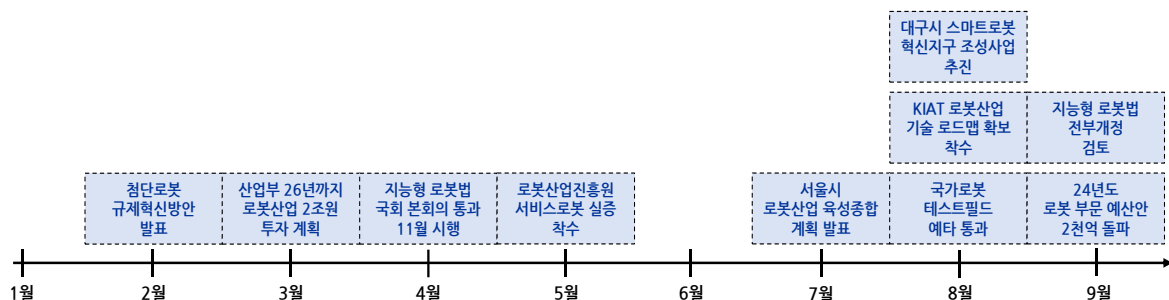
올해 들어 국내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LG 전자, 현대자동차, 한화, 네이버, KT, SKT 등)들은 로봇 사업 확대 또는 진출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 정부 또한 연초 로봇 산업을 둘러싼 규제혁신방안을 공개 이후, 지능형로봇법 등 주요 법안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제 4 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산업 생태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음. 로봇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방향성이 확인된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봇 상용화에 나서면서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가시성 또한 확보.

도표 11. 국내 대기업 로봇 사업 추진 현황

기업명	내용
삼성전자	- 웨어러블 로봇 개발 및 출시 준비중
LG 전자	- 클로이 시리즈 영업 강화(해외 진출) - 서빙로봇 및 물류로봇 중심
현대자동차	-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협업 (기아-BD 자동차 제조 공정용 로봇 개발) - 자체 실내외 모빌리티 로봇 개발 중
한화	- 한화로보틱스 신설법인 설립 추진 (협동로봇 및 물류로봇 중심)
네이버	- 네이버랩스 내에서 로봇 개발 중 - LLM 활용한 로봇 AI 개발 진행 중
KT	- 로봇 RaaS 사업 전개 중
SKT	- 로봇 RaaS 사업 전개 중
두산	- 두산로보틱스 상장 추진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로봇 산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 정책 현황(2023 년)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13. 참고: 주요 로봇 이슈(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주요 뉴스(23년 1~9월)	
- 두산로보틱스, 튀르키예 딜러사 확보 - 대우조선해양 탄소강관 용접 협동로봇 개발 - HD 현대 중국에 독자 로봇 공장 설립 - 포스코, 로봇기업들과 철강공정 로봇 기술 토론회 개최 - 포스코 DX, 산업용 로봇 육성 방침 구체화 - 티로보틱스, OLED 진공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국 법인 설립 - 두산로보틱스, 미국 로크웰과 협동로봇 북미 시장 공략 - 현대위아, 물류로봇사업 본격화 - 뉴로메카, 미국 현지법인 설립 - 포스코-LG 전자, 스마트 제철소 구축 협력 - 뉴로메카-원익로보틱스와 로봇/자동화 개발사업 추진 MOU - 뉴로메카, 중국 로쉬와 로봇 자동화 솔루션 파트너십 체결 - 두산로보틱스, 텔스타홈멜과 스마트팩토리 관련 MOU - 현대삼호중공업, 협동로봇 24대 도입 - 두산로보틱스 아워홈과 단체급식용 협동로봇 개발	- 유일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개발 정부과제 선정 - HD 현대로보틱스 2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60% 증가 - 한화, 로봇 사업(협동로봇과 AGV) 신설 법인 설립 - 기아·보스턴다이나믹스 자동차 공정 로봇 개발 목표 - 한화, 협동로봇 신제품 및 솔루션 추가로 경쟁력 확보 - 뉴로메카, 위드포인트 전략 투자로 용접 솔루션 강화 - 두산로보틱스, MS 등과 GPT 기반 솔루션 개발 추진 - 한화오션, 유상증자로 3천억원 규모의 자동화 투자 - 뉴로메카, 협동로봇 인디 7 미국 NSF 인증 취득 - 북미 2분기 산업용 로봇 주문 전년 대비 37% 감소 - 뉴로메카, 품질/환경/안전분야 ISO 인증 획득 - 제우스, 290억원 규모 디스플레이 반송로봇 수주 - 유니버설로봇-인하공전, 협동로봇 전문가 양성 MOU - 뉴로메카, 펄테크 2023에서 용접 로봇 솔루션 공개 - SK 에코플랜트, 로봇 활용 의료폐기물 소각 실증 완료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참고: 주요 로봇 이슈(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 주요 뉴스(23년 1~9월)

- 삼성전자, 웨어러블로봇을 시작으로 로봇사업 본격 확대
- 현대차, 로봇 브랜드 엑스블 상표 등록
- LG 전자 테네시 공장 미국 가전분야 최초 등대공장 선정
- SKT, 두산로보틱스와 무인 커피로봇 사업 추진
- 교촌치킨, 가맹점 3 곳에 협동로봇 도입
- 배민, 서빙로봇 자회사 비로보틱스 설립
- 브이디컴퍼니, 월 29만원 서빙로봇 요금 출시
- KT, 콜드체인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개
- 뉴로메카 스마트팜 온실 전용 로봇 플랫폼 개발
- 와버트치킨 7월 미국 진출 예정
- 큐렉소, 미국 MS와 AI 수술로봇 개발 협력
- 삼성벤처투자, 뉴빌리티에 30억 투자
- 두산로보틱스, 중국 기업과 의료용 협동로봇 솔루션 개발
- 롯데쇼핑, 영국 오카도와 로봇 활용 풀필먼트센터 건설
- 로보티즈,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물류배송 로봇사업 협력
- 인티그리트 챗 GPT 활용 대화형 소셜로봇 공개
- 로보티즈, 셀바스 AI와 자율주행로봇 AI 고도화 협력
- 모빈, CU와 로봇 배송 상용화 테스트 실시
- 티로보틱스, SK 2차전지 생산공정 물류자동화 계약
- LG 전자 클로이 서브봇 업그레이드 실시
- 현대차, 27년까지 달표면 탐사 가능한 로봇 제품 개발
- 두산로보틱스, F&B 전용 협동로봇 출시
- 큐렉소, 일본 교세라와 인공관절 수술로봇 시장 진출
- 큐렉소, 뉴로메카와 의료로봇 관련 MOU
- 셀바스 AI, 클로봇/로보케어에 음성합성 기술 공급
- 비로보틱스, 중고 서빙로봇 렌탈 서비스 출시
- 에브리봇 서빙로봇사업 진출
- SGI 서울보증, 서빙/조리로봇 보증상품 출시
- KT, AI로봇 통신/SW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로보티즈, 아파트 단지내 로봇 배송 서비스 개시
- 와트, 아파트/사무실 물류로봇 출시
- 위로보틱스, 웨어러블로봇 WIM 공개
- 할리스, 매장에 서빙로봇 시범 도입 운영
- 산업용 로봇 제어 기업 테파로보틱스 투자 유치
- 레인보우로보틱스 24년 상반기 AMR 출시 예정
- 뉴빌리티, 네움시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선정
- 티라로보틱스, AMR로 미국 시장 진출
- KT-강남구청, 실외배송로봇 서비스 제공 MOU
- 티로보틱스 하반기 AMR 양산
- 로보티즈, TK 엘리베이터와 로봇 승강기 연동 시스템 개발
- 포스코 와이어/4축보행로봇으로 작업자 안전 강화 추진
- HL 클레무브-뉴빌리티, 자율주행로봇 개발 MOU
- 뉴빌리티, 세븐일레븐과 도심 로봇 배달 서비스 확대
- 로보티즈, 자율주행로봇 신모델 공개
- 큐렉소, 척추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 FDA 승인
- 티로보틱스, 일본 ZMP와 스마트병원 구축 추진
- 뉴빌리티 산자부 로봇배송 R&D 사업 선정
- SK 실더스,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실증사업 추진
- 포스코 DX, 프랑스 물류로봇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 레인보우로보틱스 플레이팅과 푸드테크 관련 MOU
- LG, 서빙로봇 미국과 일본 이어 유럽에도 진출 계획
- 삼성전자, 웨어러블로봇 실험결과 공개, 사내체험 실시
- LG 전자, 3분기 로봇 해외진출 본격화, 물류로봇 중심
- LG U+, 브이디컴퍼니와 MOU 통해 서빙로봇 공개
-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개발 등 시장 전략 수립 돌입
- 티로보틱스, 美 현지 고객사에 46억원 물류로봇 수주
- 플로틱-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로봇 PoC 진행
- LG 전자와 데니스홍 교수, 신개념 배송로봇 개발 진행
- 큐렉소 의료로봇 연간 판매대수 100대로 목표 상향
- 로보티즈 실외배송로봇 '개미' 신모델 공개
- XYZ, 아기유니콘플러스 사업 선정으로 해외진출 가속
- 전남대 연구팀 시설원에 과채류 수확 로봇 개발
- LGU+, 유진로봇과 물류로봇 사업 협력 위한 MOU
- 레인보우로보틱스, 소방 사족보행로봇 개발 기관 선정
- 에브리봇, 서빙로봇 출시하여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
- 로보아르테, 미국 NSF 인증 취득하며 북미 진출 가속
- 브이디컴퍼니, 서빙로봇 물류센터 구축 A/S도 통합
- 비로보틱스, MFC 코리아 등과 외식매장 개발 MOU
-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대한승강기협회 MOU 체결
- 알지티, 서빙로봇에 중간 주행 서비스 적용
- 대동, 농업용 로봇 개발하고 유럽시장 진출 추진 예정
- 한국은행, 로봇 팔 도입하여 금고시스템을 자동화
- 미래컴퍼니, 우즈베키스탄에 수술로봇 추가 공급
- 인티그리트, 독립기념관에 챗 GPT 탑재한 로봇 공급
- 트위니, 라인어스와 글로벌 대형마트 로봇 공급 추진
- 고피자-제우스, 서비스로봇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마로솔, 가우시움 로봇과 서비스로봇 파트너십 체결
- 인티그리트, 실시간 로봇 관계 플랫폼 플라잉렛 출시
-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및 다축보행로봇 공장투입 검토
- 삼성웰스토리-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자동화 MOU
- 클로봇, 자율주행로봇 최적 운영 기술 개발 착수
- 코가로보틱스-한국조리기능장협회 요리 자동화 MOU
- 유진로봇, 유비씨와 스마트팩토리 활성화 MOU
- 플로틱, 포브스 아시아 100대 유망기업 선정
- 큐렉소, 내년 美 큐비스-조인트 최소 20대 판매 목표
- 알지티, 베트남에서 서빙로봇 수출 계약 체결
- 물류/주차로봇기업 마로로봇테크, 20억 자금 유치
- 대동-포스코, 특수환경 임무로봇 개발 협력
-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로봇 영역 지속 확장 계획
- 뉴빌리티, 실외자율주행로봇 배송 실증 본격화
- 플로틱, 개선된 AMR 및 관계 솔루션 공개 예정
- 국내 서빙로봇 중 53%가 중국산, 대책 마련 시급
- LG CNS와 XYZ로보틱스 물류로봇 사업 강화 MOU
- 대동, 농기계 자율주행 레벨 3 국가시험 통과
- 로보케어, 국립재활원 돌봄로봇 연구 주관기관 선정
- 유진로봇, 로봇 청소기 사업 중단 고려 중
- 도구공간, 인도네시아 순찰로봇 시장 진출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참고: 주요 로봇 이슈(정책/부품/기타 관련)

정책/부품/기타 관련 로봇 주요 뉴스(23년 1~9월)	
- 김해시에 중고로봇 리퍼브센터 설립 예정 - 삼성전자, 카이스트와 로봇 인재 육성 협력 - 카이스트, 고속주행 가능한 사족보행로봇 개발 - 산업부, 첨단로봇규제혁신 방안 발표 - 삼성리서치 엔비디아 로봇 전문가 영입 - 국방부, 휴전선 일대에 무인인 복합경계시스템 도입 검토 - 현대코퍼레이션, 신사업으로 로봇 낙점 - 산업부, 26년까지 로봇 산업에 2조원 이상 투자 계획 - 산업부, 연내 로봇 배달/순찰 서비스 법령 마련 - 지능형로봇법개정안 산자위 통과, 연내 로봇 보도통행 기대 - 산업부, 상반기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공개 예정 - 지능형로봇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식약처, 서빙로봇 이용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신설 - 한국-이스라엘, 로봇/AI 기술협력 확대 - 서울시, 전기차 무인 로봇충전 시스템 실증 사업 추진 - 베어로보틱스, 대구에 테크센터 건립 추진 - 경찰청장,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과학치안 발전 방향 모색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로봇의 동의없는 촬영 허용 -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옵티머스용 로봇 배터리 공급 - 카이스트, GPT 활용 로봇 파일럿 개발 - 서울시, 로봇친화도시 육성 위해 2천억 투입 - 로봇산업진흥원 중학교 협동로봇 활용 조리환경 개선 지원 - 티라로보틱스 로봇 운용 SW 출시, 설치/운용 간편화 - 승강기協 30억 규모 로봇-승강기 연동 과제 수주 - KT/LG/현대엘리베이터 로봇-승강기 연계 사업 협력 - 알에스오토메이션, TPC 메카트로닉스와 MOU - 네이버, 초거대 AI 로봇 탑재하여 3년뒤 상용화 계획 - 드림텍, 미국 로봇기업과 로봇 완제품 개발/제조 추진 - 한미 첨단기술 협력, MIT와 이족보행로봇 개발 등	- 대구시 침산공업지역에 로봇부품 제조기지 조성 - KIAT, 로봇 기술 주도권 선점 위한 로드맵 확보 준비 - 삼성자산, K-로봇 액티브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 삼성전자, 10월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 발표 예정 - 상반기 코스닥 로봇기업 실적 악화, 하반기 개선 기대 - 빅웨이브로보틱스, 솔루션(SaaS)로 시장 경쟁력 확대 -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판 BOTZ ETF 상장 - 기업체가 대학교에 로봇, AI 학과 신설로 인재 확보 - 삼성전자 리서치, 로봇/AI 국제대회에서 수상 - 위로보틱스, 웨어러블로봇 운동 능력 개선 확인 - 현대위아 로봇 사업 확장 중, 내년부터 실적 기여 기대 - 인천로봇랜드 재추진위한 안건 가결, 26년 조성 계획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네이버, 파운데이션모델 기반 로봇 AI 연구 상황 공유 - 한국로봇산업협회, 중국전자학회와 협력 모색 - 한국기계연, 그리퍼, 구동기 등 원천 기술 개발 - 24년도 예산안, 로봇 관련 예산(R&D 등) 증액 편성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법 전부 개정 검토 - IFA2023에서 K-로봇관 운영, 뉴로메카 등 8개사 참여 - 인천로봇랜드 2024년 기반시설 착공 예정 - IFA에서 한국 로봇 기업 35억 규모 상담 달성 - 빅웨이브로보틱스, 상품/솔루션 브랜드 베셀로 공개 - 모바일 로봇 시장 규모 44년에 190조로 성장 전망 - 2030년까지 글로벌 항구에 AGV 37만대 설치될 전망 - 2024년도 로봇 부문 예산이 처음으로 2천억원 돌파 - 국내 로봇 기업 SW, 기구 설계 등 개발자 채용 증가 - KEIT, 독일 DLR과 로봇산업 기술협력강화 MOU 체결 - 엔씨소프트-트위니, 로봇제어솔루션 연구개발 MOU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참고: 주요 로봇 이슈(글로벌 시장)

글로벌 로봇 주요 뉴스(23년 1~9월)	
(미국)	- 파나소닉, 로봇 동작 교시 효율화 기술 개발
- MS가 챗 GPT 활용 로봇 제어 연구 수행	- 일본 로봇공업회, 산업용 로봇 수주전망 하향 조정
- 어질리티 로보틱스, 물류 작업용 휴머노이드 공개	- 우주로봇 스타트업 기타이, 시리즈 B 투자 유치
- 디즈니, AI 로봇 주디 공개	- 무진, 123억엔 투자유치, 제품/솔루션 확장 계획
- 뉴욕 경찰이 경찰 로봇 투입 결정	- 화낙, 산업용 로봇 누적 판매대수 100만대 돌파
- 뉴욕 경찰, 나이트스코프 순찰로봇 도입	- 노무라 부동산, 청소로봇-엘리베이터 연동 실증 개시
-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피규어 930억 투자 유치	- 파나소닉 2029년까지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생산
- 엔비디아, 아이작 AMR 플랫폼 공개	(중국)
- 서브로보틱스, 우버이츠에 자율배달로봇 2천대 보급	- 오리온스타, 서비스 로봇과 챗 GPT 연동
- 구글 딥마인드, 로봇 팔 작동 AI 모델 로보캣 개발	- 두봇 20kg 가반하중 협동로봇 출시
- GM, 로봇 EV 충전기 특허 등록	- 유니트리로보틱스 다리-바퀴겸용 4족보행로봇 공개
-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칩을 구동되는 로봇 팔다리 제안	- 화웨이 로봇회사 설립
- 인텔,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피규어에 113억 투자	- 유니트리로보틱스 4족보행로봇 신제품 공개
- 구글 RT-2 공개, RT-1 대비 두 배 성능 보여	- 푸리에, 휴머노이드로봇 GR-1 공개
- 아마존, 아이로봇 신규 부채 발생으로 인수가 15% 하향	- 하이크로봇 상장심사 재개, 60억 위안 조달 계획
- 아마존의 영국 오키도 인수 가능성 부상	- 푸두로보틱스, 청소로봇 일본 진출, 24년까지 4천대 판매
- 게코로보틱스 미 해군과 환경 검사 업무 확대	- 중국 두봇, 영국 벤허브와 스마트편의점 구축
- UC 샌디에고 시각 의존하지 않는 로봇 핸드 기술 개발	- 중국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생산 +5%yoy, +10%yoy
- 심보틱 3분기 매출액 3.12억\$ 기록하며 대폭 성장	- 중국 베이징시 로봇 산업 지원책 발표 예정
- 우버-엔비디아, 실외배송로봇 기업 서브로보틱스 투자	- 푸두로보틱스 홍콩 시장 점유율 95%까지 성장
- 미국 서브로보틱스, 자금 조달하고 향후 IPO 예정	- 중국 베이징시 14억달러 규모 로봇 펀드 발표
- DHL-로커스로보틱스 제휴확대, 향후 5천대 로봇 배치	- 중국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3~10년 내 출시 예정
- 애크로닉, 휴머노이드 아폴로 공개, 24년말 출시 목표	- 드리미 테크놀로지, 휴머노이드 등 다수 로봇 공개
- Cognex, OSARO 파트너 얼라이언스에 합류	- 웨이런 1억위안 투자 유치, 4족보행로봇 주력
-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브라질 ABDI에서 테스트	- 중국 최대 무역 박람회서 4억위안 규모의 로봇 계약
-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에 추가 출자 단행	- 푸두로보틱스, AMR 원격 관리용 오픈플랫폼 출시
- 고스트로보틱스, 미국 육군 무기화 테스트 추진	- 중국 소프트 로봇 기업 SRT가 1.5억위안 조달
- 로크웰오토메이션 캐나다 클리어패스로보틱스 인수	- 중국 커창판 상장 로봇 기업 상반기 실적 부진
-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투입	(기타)
- 보스턴다이나믹스, 유럽 오토그룹에 로봇 공급 계약	- 독일 세레악트, 픽 GPT 출시
- Osaro, 미국 화낙법인에 비전 SW 제공	- 독일 뉴라로보틱스 700억 투자 유치
(일본)	- 독일 로벨, 철도 유지보수에 화낙 로봇 도입
- 일본 산업용 로봇 수주액 3년 연속 증가	- 독일 세레악트, LLM 활용 픽 GPT AI 앞세워 투자 유치
- 화낙 상하이 공장 7월 완공, 10월 본격 생산 가동	- 독일 협동로봇 기업, 프랑카 에미카 예비 파산 신청
- 가와사키중공업, 팔 달린 서빙로봇 공개	- 스위스 ABB, 미국 미시간주에 제조시설 확대
- 소프트뱅크, 버크셔 그레이 M&A	- 스위스 ABB 협동로봇 신제품 2종 출시
- 일본 도넛로보틱스, 가정용 로봇에 챗 GPT 연동	- 스위스 ABB, 스웨덴에 로봇 허브 26년 개소 예정
- 가와사키중공업, 독일 노이라로보틱스와 협동로봇 공개	- 노르웨이 1X, 오픈 AI 투자 유치
- 화낙, 50키로 가반하중 협동로봇 개발	- 오키도와 오토스토어 특허 분쟁 최종적으로 타결
- 소프트뱅크, 프랑스 물류 로봇 기업 발요 인수	- 볼트, 연말부터 자율주행 로봇 음식 배달 개시
- 소프트뱅크와 심보틱, AI 활용 창고 합작사 설립	- 이스라엘 스카이라인로보틱스 335만달러 투자 유치
- 화낙 연간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로봇 수요 감소 우려	- IFA 2023에서 다수 로봇 기업 참여, 로봇 관심 확대
- 파나소닉, 자율주행로봇 배송 서비스 운영 개시	- 인도 스바야 로보틱스 4족보행로봇 개발
- 일본 무사시정밀공업, 니덱의 AGV 사업 인수	- 아람코, 스위스 애니보틱스에 투자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기대감을 성장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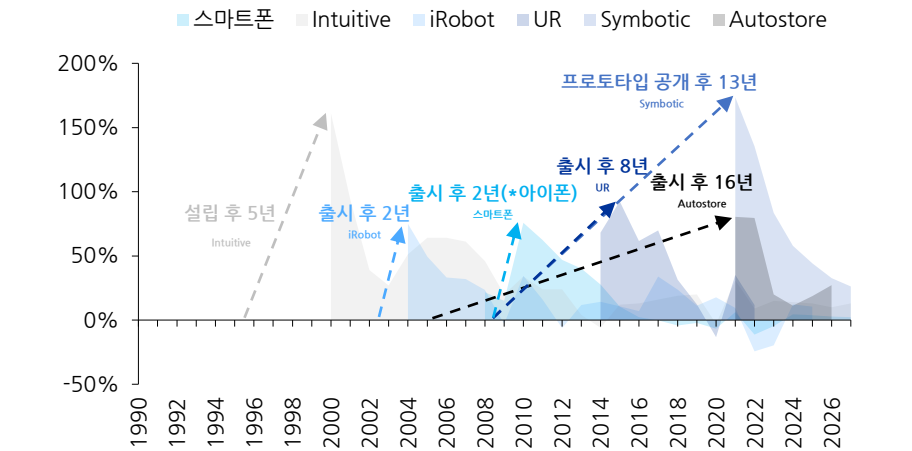
높아지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 기대감을 성장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당사는 로봇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1) 명확한 사용 목적과 효용 가치가 있어야 하고 (2) 가능하다면 로봇 그 자체가 단일 시스템으로서 어떠한 상위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산업용 로봇과 청소기 로봇(iRobot), 수술 로봇(Intuitive Surgical)이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사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 산업용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을 빠른 속도로 오차없이 수행하며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이라는 효용을 가져다 주었고, 청소기 로봇은 인간이 하기 귀찮은 작업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으로 제공해왔으며, 수술 로봇은 높은 수술 성공률과 치료 효과라는 명확한 이점을 지녔음.

세가지 로봇 분야의 보급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기 로봇 > 수술 로봇 > 산업용 로봇 순으로 보급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추정됨. 로봇이 단일 목적을 지녔거나(청소기 로봇),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지만 단일 시스템으로서 보급이 용이(수술 로봇)한 로봇일수록 보급 속도가 빨랐음. 사람의 팔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산업용 로봇은 활용 방법이 다양하고, 공장에서 활용될 경우 공장의 상위 시스템과 연동되어 동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용도 모색기와 도입 정체를 겪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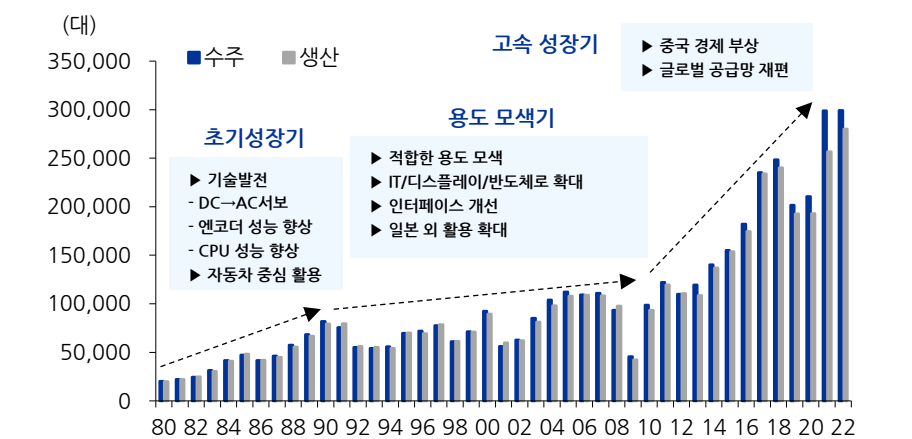
향후 유망한 로봇 분야로 협동 로봇 분야와 물류 로봇 분야를 선호하나, 해당 로봇 분야는 전통 산업용 로봇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용도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아직은 로봇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위 시스템(MES 또는 WMS 등)에 종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급 확대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 하지만, 해당 로봇에 대한 수요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어, 최대한 많은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 즉 우수한 SI 파트너를 다수 보유하거나, 안정적인 캡티브 수요를 확보한 기업이 선호될 수 있음. 명확한 수요처가 없다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수요 창출 능력 또한 중요한 성장 요소로 작용할 것.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자가 명확한 사용 목적이 없더라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춘 로봇(고도화된 지능을 갖춘 휴머노이드 등)을 개발하거나, 다변화되는 고객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로봇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 유망하다고 판단.

도표 17. 주요 로봇 기업의 성장 궤도 진입까지 소요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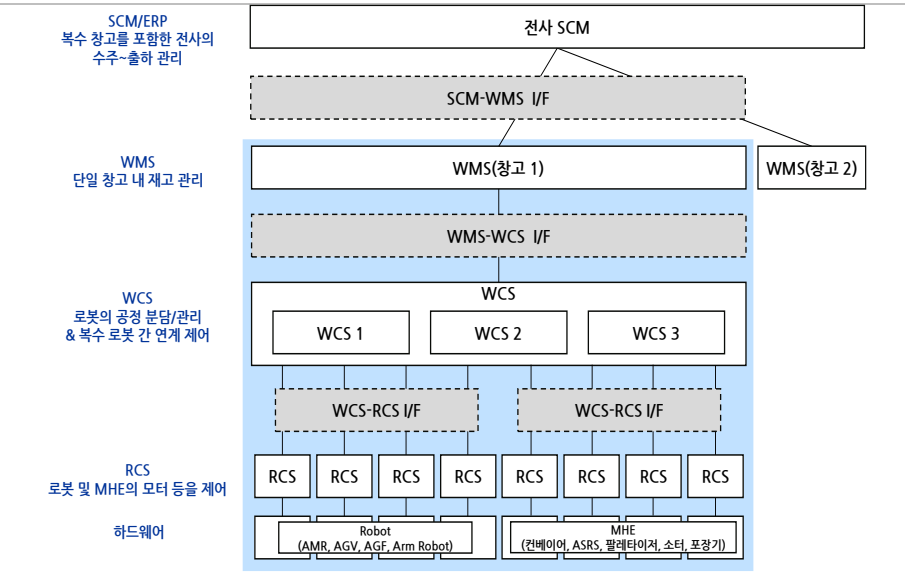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매출액 또는 판매량 yoy%

도표 18. 일본 산업용 로봇 수주 및 생산 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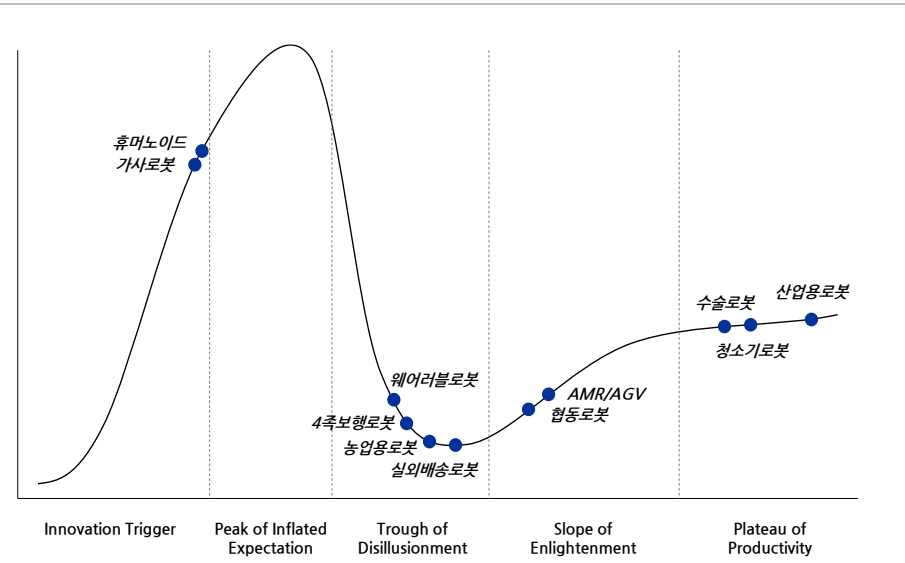
자료: JARA,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물류 로봇 시스템 아키텍처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0. 로봇 산업 하이프 사이클(유진 추정)



자료: 유진투자증권

Top Pick: 레인보우로보틱스 – 국가대표 로봇 기업

투자의견 BUY(유지) / TP 200,000 원(상향)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사족보행로봇(RBQ)을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각각 서빙 로봇과 물류 로봇(AMR)을 출시하며 로봇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 중. 협동 로봇 사업을 주축으로 서빙 로봇과 물류 로봇을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확보하고, 사족보행로봇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족보행로봇까지 모든 로봇 플랫폼을 아우르게 될 것으로 전망.

동사의 2 대 주주인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도 초미의 관심사. 구체적인 협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올해 8월 삼성웰스토리나 급식 자동화 MOU를 체결하며 첫 협력 사례를 기록. 양사간 기술 협력 및 삼성전자의 공장 자동화에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활용 등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에 기대.

동사가 출시 및 출시 예정인 로봇은 모두 개별의 로봇 유형이나, 제어/보행 알고리즘과 SLAM Navigation, 감속기 등 주요 로봇 부품 등 동사의 로봇 핵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음. 현재 다수의 정부 지원 과제와 내부 수행 과제를 통해 로봇 HW 및 SW 업그레이드, 부품/부착물(그리퍼 등) 개발을 통해 로봇 기술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핵심 기술 고도화가 동사가 보유한 전 제품군의 성능 개선 및 기술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로봇 부품과 SW 등 다양한 원천 기술력을 내재화하여,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로봇 플랫폼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투자의견 BUY 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00,000 원으로 상향 조정함. 목표주가는 RIM(잔여이익모델)으로 산출한 내재가치를 바탕으로 제시. 향후 다양한 로봇 플랫폼의 판매 본격화를 가정. 실적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에 대한 부담 존재할 수 있으나, 단기 관점이 아닌 중장기관점에서 투자의 접근을 추천함.

도표 21. RIM 밸류에이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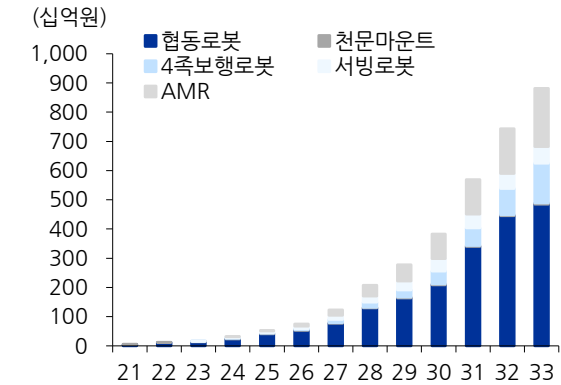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CV
지배주주자본(기말)	1,372	1,460	1,612	1,811	2,139	2,692	3,430	4,446	5,959	7,934	10,276	
YoY	123.1%	6.4%	10.4%	12.3%	18.1%	25.9%	27.4%	29.6%	34.0%	33.1%	29.5%	
지배주주자본(평균)	994	1,416	1,536	1,711	1,975	2,415	3,061	3,938	5,203	6,947	9,105	
YoY	81.7%	42.5%	8.5%	11.4%	15.4%	22.3%	26.7%	28.7%	32.1%	33.5%	31.1%	
지배주주 순이익	80	87	151	199	328	553	738	1,016	1,513	1,975	2,342	
FROE	8.0%	6.2%	9.9%	11.6%	16.6%	22.9%	24.1%	25.8%	29.1%	28.4%	25.7%	
Rf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Rp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Beta (기업리스크)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COE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FROE-CEO	-0.88%	-2.72%	0.95%	2.72%	7.71%	13.99%	15.22%	16.91%	20.17%	19.53%	16.82%	
Residual Income	-9	39	15	47	152	338	466	666	1,050	1,357	1,531	1,531
YoY	-147.0%	340.3%	-137.9%	218.3%	227.4%	122.0%	37.9%	42.9%	57.6%	29.3%	12.9%	87,773
PV Facotr	1.000	0.918	0.843	0.774	0.711	0.653	0.600	0.551	0.506	0.464	0.426	0.391
PV of RI	-	35	12	36	108	221	279	367	531	630	653	34,360

계속성장률: 7.00%
베타: 1.2
Rf (한은 기준금리): 3.50%
Rp: 4.50%
PV Factor: 0.918

초기 주주가치	1,372
추정된 RI의 현재가치	2,801
계속가치의 현재가치	+) 34,360
주주가치 합계 추정치 (억원)	38,534
발행주식수 (천주)	/) 19,251
추정 주당가치 (원)	200,000
현재주가	166,000
상승여력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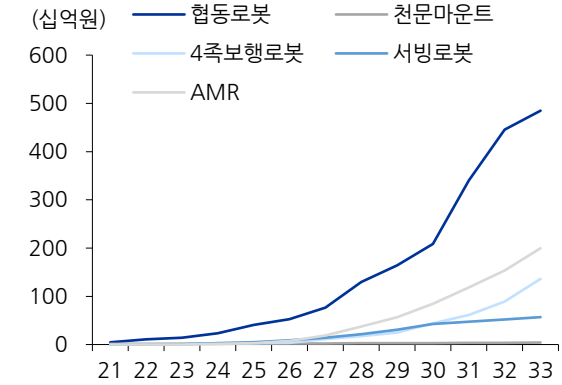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로봇 유형별 매출액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3. 로봇 유형별 매출액 전망(2)



자료: 유진투자증권

〈레인보우로보틱스 사업 업데이트 및 전망〉

- **협동 로봇**: 3/5/10/16kg 가반하중 라인업 확보. 내년 상반기 20kg 이상 고가 반하중 추가 예정(중력보상기술 적용). 정부 과제로 가반하중 500g 소형/고정밀 협동 로봇 시스템도 개발 중(~2024 년). 현재 협동 로봇 SI 업체 국내외 50~60 개사 확보(해외 20 여개사)하고 해외 협력사 지속 확대 예정. 라인업 및 판매 네트워크 확대로 안정적 성장 전망.
- **사족보행로봇**: 군용 로봇 신속연구개발사업 및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2024 년), 소방용 4 족보행로봇 기반 인명탐지 솔루션 개발사업(~2028 년) 등 다수의 정부지원과제 사업에 참여 중. 로봇 팔과 비전 시스템과의 결합, 보행 제어 기술 고도화 등 성능 개량 기대. 향후 관용 중심의 활용, 민간 기업의 제조 시설 감시/정찰/순찰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내년 중 군용 로봇 시제품 납품도 예정.
- **서빙로봇**: 23년 하반기 출시 예정. 일부 F&B 매장에서 필드 테스트 진행 중. 푸드테크 스타트업 플레이팅과 MOU 통해 100 대 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 외산 로봇 대비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가파른 시장 침투 전망.
- **AMR**: 24년 상반기 출시 예정. 정부 과제로 모바일 오더피킹 로봇 기술도 개발 중(~2024). 향후 물류, 공장 내 활용 예상.

도표 24. 레인보우로보틱스 참여 정부지원과제

사업명	주관부서	주요 내용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방사청	비정형 복잡한 환경에서 로봇팔 이용한 다중임무용 다족형 로봇 통합 운동제어 기술 개발
군용로봇 신속연구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원격/자율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서 특전사 및 보병부대/육군본부에 배치되어 대테러작전 수행 및 감시작전, 방역작전 등에 투입
소방용 4 족보행로봇기반 인명탐지 및 화재진압 솔루션 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험지 극복 능력, 재난 환경 지도 생성, 문열기/가스밸브개폐 등 초동 대응 능력
가반하중 500g 급 고정밀협동로봇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의약, 전자,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활용 기대
물류창고 내 선반피킹에 최적화된 모바일 오더피킹 로봇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소분되어 선반에 적재된 상품의 모바일 매니폴레이션 기반 오더 피킹 및 이송 기술을 개발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5. 정부 지원 과제 중 사족보행로봇 요구 성능 기준

군용 로봇(~2024 년)		소방 로봇(~2028 년)	
중량	49.5kg 이하	중량	48kg 이하
최대속도	4km/h 이상	최대속도	4.8km/h 이상
운용시간	90 분 이상	운용시간	90 분 이상
등판능력	전면 30%/측면 20% 이상	등판능력	전면 45%/측면 20% 이상
수직장애물극복능력	높이 20cm 이상 계단 극복	수직장애물극복능력	높이 20cm 이상 계단 극복
감시능력	주/야: 인위인지 500m/100m 이상	운용 거리	70m 이상
방진방수	IP54	방진방수	IP65
소음	7m 50db 이하	멀티모달센서 솔루션 기반 SLAM 정확도	0.3m 이하
탈부착장비(대테러용)	9mm 급 권총 RCWS 및 비살상무기 (섬광폭음탄, 최루가스살포기) 로봇팔(실내문 개방 가능)	재난지역 탐색속도	20m/분
탈부착장비(체온측정)	체온 측정장비	로봇팔 가반하중	2.5kg 이상
운용온도	-20~43 도		
통신방식	RF 통신, KCMVP 인증		
배터리	교체형 방식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6. 사족보행로봇 경쟁사와의 스펙 비교

구분	Vision 60	Spot	Unitree	ANYbotics	RBQ3/5	RBQ(2024F)	RBQ(2028F)
무게	51kg	32kg	15kg	50kg	25/30kg	-	-
방수방진	IP67	IP54	-	IP67	-	IP54	IP65
운용온도	-45~55 도	-20~45 도	-	-10~50 도	-	-20~43 도	-20~43 도
최고속도	11km/h	6km/h	9km/h	5km/h	4~8km/h	4km/h 이상	5km/h 이상
경사극복능력	±35~40 도	±30 도	±30 도	±30 도	±30 도	±30 도	±45 도 이상
단차극복능력	-	22~30cm	15cm	25cm	20cm	20cm 이상	20cm 이상
배터리 용량	1,250Wh	564Wh	237Wh	932Wh	1,000Wh	-	-
운용시간	3 시간	1.5 시간	1~2 시간	1.5~2 시간	3 시간	1.5 시간 이상	1.5 시간 이상
최대 가반하중	10kg	11~14kg	7~10kg	10kg	3/5kg	-	12kg
가격	2~4 억원 (추정)	1~2 억원 (추정)	200 만원 (1,600\$)	2 억원 (추정)	3,000~ 5,000 만원 (추정)	-	-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7. 카메라와 로봇팔이 결합된 사족보행로봇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필드 테스트 중인 서빙 로봇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KQ)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단위:억원)	2021A	2022A	2023F	2024F	2025F
자산총계	64	76	145	155	173
유동자산	58	62	136	144	160
현금성자산	53	53	122	117	116
매출채권	2	3	4	9	15
재고자산	3	5	8	17	28
비유동자산	6	14	9	11	13
투자자산	2	9	2	2	2
유형자산	4	4	7	7	9
기타	0	0	1	2	2
부채총계	16	15	8	9	11
유동부채	1	3	6	8	10
매입채무	1	1	2	3	6
유동성이자부채	0	0	2	2	2
기타	0	2	2	2	2
비유동부채	14	11	1	1	1
비유동이자부채	14	11	0	0	0
기타	1	1	1	1	1
자본총계	48	62	137	146	161
지배지분	48	61	137	146	161
자본금	8	8	10	10	10
자본잉여금	51	57	126	126	126
이익잉여금	(14)	(7)	1	10	25
기타	2	2	(0)	0	(0)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48	62	137	146	161
총차입금	14	11	2	2	2
순차입금	(39)	(43)	(120)	(115)	(113)

현금흐름표

(단위:억원)	2021A	2022A	2023F	2024F	2025F
영업현금	(3)	1	11	(2)	3
당기순이익	(8)	6	8	9	15
자산상각비	1	1	1	2	2
기타비현금성손익	7	(5)	(5)	(1)	(0)
운전자본증감	(3)	(2)	5	(13)	(14)
매출채권감소(증가)	(1)	(1)	(1)	(5)	(6)
재고자산감소(증가)	(1)	(2)	(3)	(9)	(11)
매입채무증가(감소)	0	0	1	1	2
기타	(1)	1	8	0	0
투자현금	(5)	(3)	(54)	(5)	(7)
단기투자자산감소	0	(3)	(50)	(2)	(2)
장기투자증권감소	0	0	0	0	0
설비투자	1	1	3	4	3
유형자산처분	0	0	0	2	0
무형자산처분	(0)	(0)	(1)	(1)	(1)
재무현금	54	(0)	59	0	0
차입금증가	17	(0)	(0)	0	0
자본증가	28	0	59	0	0
배당금지급	0	0	0	0	0
현금 증감	47	(3)	16	(8)	(4)
기초현금	4	50	48	64	56
기말현금	50	48	64	56	52
Gross Cash flow	(0)	3	5	10	17
Gross Investment	8	3	(1)	16	19
Free Cash Flow	(8)	(0)	6	(5)	(2)

자료: 유진투자증권

손익계산서

(단위:억원)	2021A	2022A	2023F	2024F	2025F
매출액	9	14	17	32	53
증가율(%)	65.3	51.8	21.3	93.9	65.1
매출원가	4	6	8	16	26
매출총이익	5	7	8	16	26
판매 및 일반관리비	6	6	30	8	10
기타영업손익	33	5	420	(75)	24
영업이익	(1)	1	(22)	8	17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흑전	101.2
EBITDA	(0)	2	(21)	10	19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흑전	87.7
영업외손익	(7)	2	32	3	3
이자수익	0	1	3	3	3
이자비용	0	1	0	0	0
지분법손익	0	0	0	0	0
기타영업손익	(7)	2	29	0	0
세전순이익	(8)	3	10	11	19
증가율(%)	적지	흑전	225.2	9.3	78.7
법인세비용	0	(3)	2	2	4
당기순이익	(8)	6	8	9	15
증가율(%)	적지	흑전	38.7	8.9	74.5
지배주주지분	(8)	6	8	9	15
증가율(%)	적지	흑전	37.8	9.6	74.5
비지배지분	(0)	(0)	0	(0)	(0)
EPS(원)	(486)	344	413	453	791
증가율(%)	적지	흑전	20.1	9.6	74.5
수정EPS(원)	(486)	344	413	453	791
증가율(%)	적지	흑전	20.1	9.6	74.5

주요투자지표

	2021A	2022A	2023F	2024F	2025F
주당지표(원)					
EPS	(486)	344	413	453	791
BPS	2,895	3,651	7,129	7,583	8,373
DPS	0	0	0	0	0
밸류에이션(배, %)					
PER	n/a	100.1	403.0	367.6	210.7
PBR	9.4	9.4	23.4	22.0	19.9
EV/EBITDA	n/a	261.4	n/a	310.2	165.3
배당수익률	0.0	0.0	n/a	n/a	n/a
PCR	n/a	225.4	681.9	311.3	188.2
수익성(%)					
영업이익률	(11.5)	9.6	(131.9)	26.2	32.0
EBITDA이익률	(5.1)	15.1	(125.7)	31.1	35.4
순이익률	(87.5)	42.4	48.5	27.2	28.8
ROE	(28.8)	10.6	8.0	6.2	9.9
ROIC	(10.0)	6.8	(96.8)	27.7	33.3
안정성(배, %)					
순차입금/자기자본	(81.8)	(69.2)	(87.5)	(78.6)	(70.2)
유동비율	3,923.6	1,949.5	2,129.8	1,839.4	1,559.8
이자보상배율	(4.6)	1.0	(46.8)	18.4	36.9
활동성(회)					
총자산회전율	0.2	0.2	0.1	0.2	0.3
매출채권회전율	7.3	5.8	4.5	4.7	4.3
재고자산회전율	4.0	3.4	2.5	2.5	2.3
매입채무회전율	15.4	15.7	11.4	12.3	11.7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3.06.30 기준)

